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추국희	학번	████████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5. 1. 18(일) ~ 2. 8(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홈스테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랑가라 역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에는 교통편이 잘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을만큼 학교의 분위기도 적절하였습니다. 특히, 카페테리아나 도서관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학교생활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p>처음 도착 날, OT에서는 지도와 3주간 사용할 교통티켓을 나눠주면서 캐나다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았습니다. 이때 교육을 받고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하나씩 성취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습니다.</p> <p>OT이외에 본수업은 Taby라는 선생님과 순천향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겨울에는 다른 나라에서 어학연수를 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함께 수업을 듣지 못하여 분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3주간 짜여진 스케줄 표 대로 찾아가면 되고, 수업 시작을 알리는 2가지를 지켜주면 taby는 그 날 계획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phone bye bye~ your name card~ What did you do yesterday?" 시작할 때 항상 taby는 저희에게 어제 친구들과 무엇을 하였는지, 홈스테이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질문합니다. 이때 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주로 캐나다에 대한 지식을 배우거나 실생활 영어를 배우거나 전치사 부분을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역할극, 포스터 꾸미기, 프레젠테이션, 이야기하기, 친구찾기 등 강의실 내에서도 활발한 activity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는 주로 홈스테이 가족과 인터뷰를 해오거나 자신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준비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과제를 할 때에는 노느라 귀찮은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숙제를 해오면 다른 친구들과 과제에 대해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Taby의 열정적인 수업 덕분에 항상 다양한 재료와 준비물이 수업에 사용되었고, 덕분에 즐겁게 3주동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랑가라 학생들과의 교류가 더 있지 않았던 것과, 사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p>

	<p>려하지 않았던 것,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더 배우지 못했던 것, 전치사에 너무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랑가라 학생들과의 교류는 물론 있지만, 한번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았고, 사전에 우리의 영어 실력을 보지않고 설문지만으로 요구를 조사하여 수업을 계획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때문 너무 지루하기도 하여 학생들의 의욕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p>
Activity	<p>Activity 종류에는 벤쿠버 박물관, 그랜빌 아일랜드, 컬링, 그라우스 마운틴, 벤쿠버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 스포츠인 컬링은 코치에게 컬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게임을 해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이스링크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갑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가 필요하며 운동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라우스 마운틴을 갔을 때에도 추위 때문에 따뜻하게 입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이외에 박물관, 아일랜드, 아쿠아리움은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고, 개인적인 기념품이나 음식에 돈이 쓰이는 것 뿐입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처음에는 레인쿠버라고 하여 비가 많이 올줄 알았지만, 첫 2주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마지막 주에 7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한국보다 기온은 높아서 그다지 춥지 않았고, 현지인들은 주로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고 다니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겂옷을 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았고, 젖을 수 있는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항상 젖기 때문에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
안전	<p>겨울에 벤쿠버는 4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여 5~6시가 되면 어두워집니다. 다운타운에서 가면 안되는 곳만 제외하면 친구들과 이동하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밤늦게는 혼자다니지 말고 친구와 다니는 것이 더 좋고, 홈스테이 집에 올때 캐나다 사람들은 밤에는 주로 걸어다니지 않고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혼자 걸어갑니다. 거리 조명도 별로 없어서 어둡어둑하기 때문에 일정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쿠버에는 도둑들이 있어서 항상 홈스테이 창문과 문은 잠궈두어야 합니다.</p>
숙소	<p>저는 영국계인 가족과 홈스테이를 하였는데 1층 손님방에 머물렀고, 딱 외국하면 생각날 수 있는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2층은 가족들이 머물러서 올라가지 못하였고, 화로에 불을 때워서 난방을 하여 춥지 않게 지냈습니다.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준비하여서 신발대신 착용해야 되며, 욕실을 쓸 때에도 욕조에 머리카락을 자주 치워주는게 예의입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 내 규칙이 확고하여서 저 또한 같이 지켜줄 수 밖에 없었는데, 식사시에는 자신이 먹을 만큼 음식을 덜어 먹고 상대방이 다 먹을 때까지 다같이 기다렸다가 식사 후 디저트 타임을 가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가족들이 개인 스케줄 때문에 바빠 이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후 식기를 정리할 때에는 나이가 제일어린 아이가 그릇을 주방</p>

	으로 옮겨 식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밥먹고 나서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이때 적절히 숙제가 있다고 둘러대야 자신의 개인시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가 되면 아이들은 잠을 자러가야 하고, 저 또한 실례가 되지 않게 조용히 하는게 예의입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 기타( ) 저는 아침은 항상 홈스테이에서 먹고, 점심은 홈스테이가 싸준 것으로, 저녁은 외부식당에서 먹거나 홈스테이에서 먹었습니다. 아침은 항상 시리얼이나, 누텔라나 잼을 바른 와플, 빵에 버터발라 삶은 계란을 올린 것, 스ক্র램블, 오트밀 등 아줌마가 해주신 것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그 전날 밤에 먹고 남은 음식을 싸오거나 햄이나 연어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점심을 첫날 싸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하시고, 점심메뉴가 맘에 안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은 외부식당에서 먹지 않으면 홈스테이에서 먹는데 치킨이나 피자, 감자, 야채, 계란, 파스타, 비프, 연어 등등 아주 신기한 세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통	거주한 홈스테이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서 항상 등교나 하교시에 걸어다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주어진 교통티켓이 부족하였지만 저는 남을 정도로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은 다운타운이나 액티비티를 갈 때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내교통은 단순하여서 실수하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고, 간격마다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347,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약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50,000원	
의류	약 50,000원	
기념품 값	약 100,000원	
운동화(꼭 챙기시길)	100,000원	카드
미국 돈	100,000원	
교통비	약 50,000원	카드
합계	650,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 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방수가 될 수 있는 옷을 챙겨야 하며, 많이 걷기 때문에 굽이 있는 것은 한번 밖에 신지 못했고, 운동화나 단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운동화를 챙겨서 저처럼 외국에서 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좀더 사전에 여행 계획을 세워서 맛집이라던지 꼭 가봐야 하는 곳을 많이 알아와서 하루하루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밤에 홈스테이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스케줄을 미리 짜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수업 도중에 목이 많이 말라서 가능하면 텀블러를 챙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 홈스테이와 연락을 해야하는데 문자를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문자를 쓰면 300원, 받으면 150원(?) 정도 돈이 나갑니다. 홈스테이에게 폐북을 하는지 물어봐서 연락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카카오톡 어플을 설치하여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첫날 연락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정해서 저처럼 문자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겨울엔 선글라스 필요없습니다.
- ★ 홈스테이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신다구요?? 절대 전통한과자나 약과는 준비하지 마시고 한국적인 물건을 준비하세요. 잘 먹지 않습니다.
- ★★★ 홈스테이한테 음식을 해주고 싶으시다구요?? 사전에 한국에서 연습을 해보시거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호떡을 했지만 처음해보아서 망하였고, 자신이 요리하는 법을 연습해서 저녁식사에서 같이 메뉴를 추가하는 것도 홈스테이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아이스 와인을 꼭 사도록 하세요. 후회됩니다. 기념품 사전에 조사해가기!!!!!!
- 동전지갑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에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맘에 걸렸지만, 후에 남는 경험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캐나다는 더 좋은 나라였고, 지난 3주간 그곳에 있었던 것이 꿈이었던 것 처럼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이 그리워서 캐나다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연수온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만난 인연들이 무척이나 소중하고 값진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회화를 할 수 있지만 홈스테이에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안통하는게 대다수 였지만 그래도 용기잃지 않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홈스테이를 하면서 눈치보이는 것도 좀 있고, 소외감이 드는 감정도 있었지만 신경쓰지 않고 생활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집밖에서 만나 보는 것을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가족분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Robson street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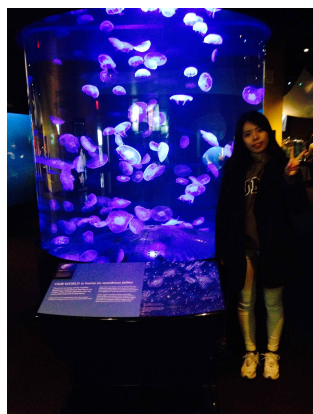
UBC에서



curling



Victoria



Vancouve aquarium



closing ceremony